

## 투자확대로 건진 활성화해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을 실행하는 첫 해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의료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수준을 높이고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득이전적·보상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공의료기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양등을 억제하고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을 강화, 국민보건증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공급능력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지 못했고 의료자원의 8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또한 국민의료비가 GNP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 가계·정부등 경제주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문턱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경우



윤 상 룡

복지재정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예방 관리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내실있는 의료복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등 의료복지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선진외국들은 의료비 양등에 따른 복지재원의 고갈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장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조합형태별로 현격한 재정불균형 상태를 노출, 제도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 약43%가 적용을 받고있는 지역의료보험은 50%에 해당하는 조합들이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어 진료비 체불액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제7차 5개년 계획에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이 주요시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듯이 복지재정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의보법에 건강진단은 비급여로 되어있어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경우 30만원 이상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층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국민에게 검진을 실시해주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은 국가적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정책적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홍보기능을 활성화하여 일반국민

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피보험자 97만8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질환률이 4~8%에 달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협회가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필자= 보건신문사 취재부장)

**새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에서의 행복에 대해 설교를 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설교 내용에 감동을 받고 모두 천국에 가게 되기를 기원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신도들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물론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아무리 천국이 좋기로써니 현세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본능



송 해 영

때문이었다.

오래 살기 위한 최대, 최고의 조건은 물론 ‘건강’이다. 건강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란 말도 있다.

인류의 탄생이래 모든 사랑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다.